

# 전시장은 북극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12월 1일까지 남구 양림미술관  
이강하미술관·이누이트족 협업  
현지서 공동 작업 진행 결과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 부록전시 국가관 파빌리온 31개 중 양림미술관에 조성된 '캐나다관'은 독보적이다. 이강하미술관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당시 캐나다 소수민족 이누이트 예술을 주제로 한 파빌리온 전시 첫선을 보이고, 이후 캐나다 대사관과 함께 이누이트 작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번 캐나다관 전시는 교류사업 연장 선상에서 다시 한번 광주 작가들과 콜라보로 선보이는 이누이트 예술의 장이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주제는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이다. 광주남구 구립미술관인 이강하미술관이 같은 남구 산하 공간인 양림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전시를 선보인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철아·이조흠 작가, 주세웅 스트리트 댄서와 함께 이누이트 작가 6인이 독특한 협업의 결과물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집'은 익숙함과 트라우마로 가득 찬 공간을 의미한다. 유럽인들에 의해 땅



광주 남구 양림미술관 캐나다 파빌리온 전경.

을 빼앗기고 핍박받았던 과거를 가진 이누이트 민족의 경험은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투쟁의 역사를 지닌 광주에서 다시 한번 공유된다. 때로는 지구의 외딴곳 북극에 담긴 환경적 문제에 공감하며 장소적 풍경을 구현했다.

캐나다 파빌리온에 참여하는 이누이트 민족의 예술가는 새마이유 아커석, 슈비나이 애슈나, 카버바우 매뉴미, 쿠비안톡 푸드라, 핏설악 쿼미르 픽, 울루시 사일러 등 6인이다. 이들은 모두 그림을 주요 매체로 한 작업을 선보인다. 특히 그들을

돌려싼 풍경과 신화를 묘사한 독특한 드로잉을 디지털로 렌더링해 전시장 벽에 대형 벽화를 새겼다. 전시장은 어느새 북극의 풍경으로 창조된다.

이외에도 각각의 작가들은 드로잉 액자 하나씩 내걸었다. 보통 흑연, 색연필, 펜, 수채화 등의 재료를 통해 작품을 완성했으며 동화적인 묘사가 특징이다. 이누이트 민족은 동물을 영적인 존재로 믿고 윤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화폭에는 동물이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일상과 자연을 단순한 선과 색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광주작가로 이번 전시에서 협업한 김철아, 이조흠, 주세웅은 앞서 이누이트 민족들이 사는 캐나다 최북단 긴가이트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 한국의 전통놀이, 전통무늬,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그곳에서 보고 느낀 이누이트 세계를 펼쳐냈다.

김철아 작가는 북극의 오래된 공간에 깃든 '영혼'에 전작했다. 특히 그곳에서 발견한 '따개비'를 모티브로 한 설치물이 눈길을 끈다. 이조흠 작가는 북극의 동물들을 상상하며 곰 등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주세웅은 현지에서 즉석으로 진행한 댄스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담아 선보인다. 얼음바다가 펼쳐진 절벽의 땅에서 이누이트 민족의 전통 그림 연주에 맞춰 몸짓을 이어간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지역예술대학 졸업전시 '오색운슬' ACC서 개막

### 전남대 등 5개 대학 학과 참여 미래 문화예술 창·제작자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ACC 예술대학 졸업전시-오색운슬'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ACC가 미래의 문화예술 창·제작자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ACC 내부 문화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ACC는 이번 전시를 위해 올해 상반기 호남지역 소재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졸업전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서는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및 산업디자인학과 등 총 5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

호남지역 대학의 5개 학과 105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오색운슬'은 '다섯 빛깔로 반짝이는 물결'이라는 뜻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순우리말 '운슬'에 비유해 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각 전공 분야에서 갖고 있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CC는 이번에 선정된 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전시할 공간 제공과 전시장 구축, 각 학과별 전시 개막행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각 학과 졸업전시준비위원회 대표 학생 20여 명과 전시 구성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 성공적인 졸업전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릴레이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전공(4~13일) 학생들이 '한 걸음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 호남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18~27일)의 '나아가다, Go Forward'와 산업디자인학과(11월 1~10일)의 'Be accomplish: 이루어',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11월 22일~12월 1일)의 'Assemble: 집합', 광주대 사진영상학과(12월 6~15일)의 'Atmosphere: 비상(飛上)의 순간' 순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대학 졸업전시가 예비 예술인들의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ACC를 찾는 관람객,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해금산조 공연·판소리 '홍보가' 감상하세요

### 내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에 정인선·김근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5일 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으로 해금산조와 판소리 홍보가 장면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 첫 무대는 중요무형유산 제1회 중요제례악 전수자 정인선 씨가 나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무대를 펼친다. 고수로 양상블 크로마 대표 김민철 씨가 함께 한다.

이날 무대에서 선보이는 해금산조 공연은 대금과 아쟁의 명인 서용석이 1988~1989년 사이에 완성한 것이다.

무대에 서는 정인선 씨는 현재 해남중학교 강사 및 국악양상블 크로마 일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누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인선

김근희

두 번째 무대는 소리꾼 김근희 씨가 나서 판소리 미산제 홍보가 중 '놀부 심술부리는 대목부터 병영길 떠나는 대목' 등 주요 논대목을 선보인다. 고수는 제1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고법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도경한 씨가 함께 한다.

무대에 서는 김근희 씨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및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전국국악경연대

회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MV 메인보컬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동구 윤림동에 있는 전통문화관에서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전통문화관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토요일 전통문화관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화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다음 공연은 오는 12일 진행되며, 무형문화유산 이영애 명창을 초청해 단가 중 '명기명창', 판소리 병창 '홍보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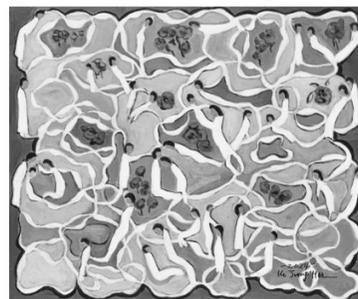
## '황혼의 찬란한 여정' 과 같았던 화업 인생

### 여류 원로작가 고정희 초대전 27일까지 광주예당 갤러리

광주예술의전당은 여류 원로작가 고정희 화백의 초대전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인생은 구름 같아요-환희'전을 27일까지 갤러리에서 선보인다. 망백(望百)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식지 않는 창작 열정을 불태운다.

고정희 화백은 6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자연을 주제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확립했다. 이번 9번째 개인전에서 1990년대 대표작품과 신작들로 다채롭게 구성해 화업 인생을 한자리에서 조망하고자 했다.

전시 주제 '인생은 구름 같아요'는 고화백의 삶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로, 구름과 바람, 산과 들, 꽃과 새 등 자연을 역동



고정희 작 '인생은 구름 같아요-환희'.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적으로 표현한 작품 32점을 뜻한다.

고화백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시기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2년 가까이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 머물러야 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아파트 창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작품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이

를 화폭으로 옮기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

맑은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흘러가듯 유연하게 모였다, 흩어지고 다시 모여 푸름으로 물들어간다. 그는 소리 없이 흘러가는 풍경이 지나가는 세월과 닮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작품에 담아냈다.

내년이면 90세를 맞는 고정희 화백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면서도 마음과 붓질만큼은 청춘이며, 청년작가 못지않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예술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다.

고정희 화백은 구례 출생으로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광주 동명여중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다. 화순중학교와 여수여고, 광주여고 등 교단에서 미술 후학을 지도했으며, 퇴직 후 여러 기획전시와 단체전 등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선인 기자